

# 8월 특허기술상 시상식

미래기업 대표 李東熙 씨 수상

특허청과 중앙일보사가 공동 제정한 「특허기술상」 8월상 수상작에 개인사업자 李東熙 씨(34·미래기업대표)가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도어체크 일체형 경첩」이 선정됐다.

특허청과 중앙일보는 8월 25일 특허청 대회의실에서 안광구 특허청장·김광섭 중앙일보편집국 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가졌다. <중앙일보 李孝浚 기자>

## 수상작 소개

### 「도어체크 일체형경첩」

- 문 自動으로 닫히고 열린상태 유지  
장치단순·설치비저렴·이용도 편리-

요즘 사무실 등에서 쓰이고 있는 여닫이문에 쓰이는 장치는 크게 문고리·경첩·도어체크·도어스토퍼 등 네가지로 이뤄져 있다.

경첩은 문짝을 문틀과 연결시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며, 문 윗쪽에 달려있는 삼각지렛대 형태의 도어체크는 문을 열때 도어체크내에 유압을 발생시켜 손을 놓으면 문이 원상태로 닫히도록 문짝을 미는 기능을 한다.

이때문에 문을 열린 상태로 두기 위해서는 보통 문아래쪽에 설치된 도어스토퍼(말굽형태)를 바닥쪽으로 기울여 고무패킹과 바닥면이 밀착되도록 하거나 또는 나무로 된 췌기를 문밑에 끼워넣는 방법등이 동원된다.

특허기술상 8월상으로 선정된 「도어체크 일체형 경첩」은 문을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거나 또는 열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실용신안(공고번호 94-2556) 장치다.

이때문에 이 장치 하나면 별도의 도어체크·도어스토퍼가 필요없다.

이번에 개발된 경첩은 일반경첩의 중간부분에 있는 원통형 회전축을 지름 2~3cm 내외의 크기로 굵게 만든뒤 상단부 경첩회전축 내부에 유압장치·밀폐판·고정용구슬을 장치하고 하단부 경첩 회전축내에는 스프링등이 설치돼 있다.

문을 열 경우 하단부 경첩내의 스프링이 더욱 꼬이는데 이때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발생한다. 가만 두면 그냥 돌아가겠지만 고정시키고자 할 때는 문을 90도(또는 1백35도)까지만 열면 상단부첩경내에 고정용 구슬(베어링 볼)이 경첩내 밀폐판에 미리 파여져 있는 홈에 끼어들어가면서 더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번 개발에 대해 업계에서는 『장치가 비교적 단순해 제작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다 도어체크 등 별도의 장치를 모두 설치했을 때보다 설치비용이 절반밖에 들지않아 경제성이 있는데다 시공과 이용이 편리해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 특허기술상

### 인터뷰

#### 李東熙<미래기업 대표>

『새로 나온 것 갖다 쓰기도 바쁘데 그런건 개발해 뭐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답답하고 위축됐던 마음을 이제는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기술상 8월상 수상자로 선정된 李東熙 씨의 수상소감이다.

7년전부터 알루미늄사시 문짝·창틀 등을 제작·납품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평소 접하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궁리한 끝에 고안한 「도어체크 일체형 경첩」에 대한 실용신안으로 수상하게 됐다.

『이번 발명은 순식간에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꾸준히 축적한 경험 등이 바탕이 된 겁니다. 이때문에 웬만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런 개발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李씨는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점들을 지나쳐버리고 그저 남들이 하는대로 외제품을 사다쓰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 절단기로 자물쇠의 고리를 자를 수 없도록 만든 도난방지용 자물쇠를 개발,

사업화를 위해 다른 이에게 샘플을 보여줬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개발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먼저 해버린 일을 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

『개발만큼이나 특허출원·등록과정이 중요하다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탓은 않습니다. 저야 다른 것 얼마든지 개발하면되고 우리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李씨는 이번 실용신안 건을 보다 발전시킨 「매립형 경첩」 등 세건의 다른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의 사무실과 방은 온갖 기계·장치의 부속품등으로 가득차 있고, 이때문에 주위에선 노총각인 그를 아예 『발명과 결혼한 사람』로 부른다.

李씨는 『몇년 전 자재납품을 받은 건축업자가 고의부도를 내버리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아 이번 개발품을 사업화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발명이 발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하고 있는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신간 안내

## 註解 特許法 (上)

신국판, 708면, 22,000원

편저: 中山信弘(동경대학교수), 공역: 정완섭 외 8인